수능 문학 개념어 종결 자료

1. 출판을 목표로 만들어진 자료의 일부입니다. 무단 복제 및 배포에 엄중히 대응합니다.

2. 수능 등의 언어 시험에 빈출되거나, 반드시 알아야 하는 개념어들을 정리하였습니다.

3. 예시는 가급적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모의고사/수능 문제를 채택하였습니다. 불가피한 경우 국립 국어원의 예시를 참조했습니다.

4. 시험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자료이므로, 평가원의 용례에 맞추어 작성했습니다. 주류의 국문학론이나 사전적 정의와는 다른 설명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컨대, '색채 이미지'의 경우 그 정의가 명료하지 않으나, 사전적 정의와는 별개로 평가원에서 출제된 문제에서의 의미만 작성하였습니다. 오로지 시험장에서 선지를 판단하는 기준만이 서술되어 있습니다.

5. 마찬가지의 이유로, 더이상 수능 또는 기타의 언어 시험에서 물어보지 않는 개념은 삭제했습니다. 가령 '여성적 어조'와 같은 문학적 개념의 경우 요즘 분위기 상 국가 공인 시험에서 물어볼 가능성이 적습니다.

6. 평가원에서 개념어에 대한 새로운 용례를 제시하면 문서는 업데이트됩니다.

2020.09.16
오르비 성남고 조경민

1. 수사법

역설 : 일반적인 이치에 맞지 않는 말. 당연한 얘기지만, '힘주어 말한다'는 뜻의 '역설한다'와는 다르다...

소리 없는 아우성, 찬란한 슬픔의 봄 13 9월) 과거는 미래 속에 존재하고 미래는 과거 속에 존재합니다. 13 6월) 타고 남은 재가 다시 기름이 됩니다.

+역설적 어조, 역설적 태도 : 일반적인 통념에는 어긋나는 서술 또는 앞선 내용과 반대되는 진술을 통해 말하고자 하는 바를 강조하는 서술 방식이다.
+역설적 상황 : 상식적으로 말이 되지 않는 상황.

14 9월「농무」 징이 울린다 막이 내렸다 오동나무에 전등이 매어달린 가설 무대 구경꾼이 돌아가고 난 텅빈 운동장 우리는 분이 얼룩진 얼굴로 학교 앞 소주집에 몰려 술을 마신다 답답하고 고달프게 사는 것이 원통하다 꽹과리를 앞장세워 장거리로 나서면 따라붙어 악을 쓰는 건 쪼무래기들뿐 처녀애들은 기름집 담벽에 붙어서서 철없이 킬킬대는구나 보름달은 밝아 어떤 녀석은 서림이처럼 해해대지만 이까짓 산구석에 처박혀 발버둥친들 무엇하랴 비료값도 안 나오는 농사 따위야 아예 여편네에게나 맡겨두고 쇠전을 거쳐 도수장 앞에 와 돌 때 우리는 점점 신명이 난다 한 다리를 들고 날나리를 불거나 고갯짓을 하고 어깨를 흔들거나 해설 : 작품은 '텅빈', '답답하고 고달프게 사는 것', '발버둥친들 무엇하랴' 등의 표현을 통해 황폐해진 농촌의 모습을 나타낸다. 생계는 힘들고, 미래가 보이지 않는 상황에 농사를 제쳐두고, '신명이 난다'든가, 춤을 추는 행위는 분명 어울리지 않는다. 이러한 역설적인 어조, 태도를 통해 화자는 농촌의 비참함을 오히려 강조하고, 자조적인 태도로 그들의 삶을 드러낸다.

11 6월「서해」
아직 서해엔 가보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당신이 거기 계실지 모르겠기에,

그곳 바다인들 여느 바다와 다를까요.
검은 개펄에 작은 게들이 구멍 속을 들락거리고
언제나 바다는 멀리서 진펄에 몸을 뒤척이겠지요.

당신이 계실 자리를 위해
가보지 않은 곳을 남겨두어야 할까봅니다.
내 다 가보면 당신 계실 곳이 남지 않을 것이기에.

내 가보지 않은 한쪽 바다는
늘 마음속에서나 파도치고 있습니다.

해설 : 화자는 분명히 '당신'을 그리워하고 있고, 보고 싶어 한다. 그에게 '서해'는 '당신'이 계실지도 모르는, 특별한 공간으로 형상화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이 계실 자리를 위해' 서해를 가지 않겠다는 화자의 선언은 분명 의아함을 준다. 그가 서해를 '가보지 않은 곳'으로 남겨두는 이유가 '당신'을 배려해서인지, 아니면 '서해'에 갔는데도 '당신'을 찾지 못하게 될 상황이 두려워서인지는 확실하지 않으나, 이 시의 역설적 태도는 화자가 '당신'을 애틋하게 그리워하는 심정을 분명히 전달한다.

07 수능 만무방 : [A]와 [B]가 묶여 당시의 궁핍한 현실을 역설적으로 드러낸다. (o)

[A] 가뜩한데 엎치고 덮치더라고 올해는 고나마 흉작이었다. 샛바람과 비에 벼는 깨깨 비틀렸다. 이놈을 가을하다간 먹을 게 남지 않음은 물론이요 빚도 다 못 가릴 모양. 에라, 빌어먹을 거 너들끼리 캐다 먹든 말든 멋대로 하여라, 하고 내던져 두지 않을 수 없다. 벼를 거뒀다고 말만 나면 빚쟁이들은 우ㅡ 몰려들 거니깐.
[B] 한참을 신음하다 도적은 일어나더니, "성님까지 이렇게 못살게 굴기유?" 제법 눈을 부라리며 몸을 홱 돌린다. 그리고 느끼며 울음이 복받친다. 봇짐도 내버린 채, "내 것 내가 먹는데 누가 뭐래?"하고 데퉁스러이 내뱉고는 비틀비틀 논 저쪽으로 없어진다.

해설 : 소설「만무방」은 아무리 농사를 지어도 빚을 갚을 수 없던 당시 농촌의 상황을 보여준다. '응오'는 성실한 농사꾼이지만, 힘들여 추수를 하더라도 전부 빚쟁이들에게 빼앗길 상황에 처하자 아예 추수를 하지 않는 선택을 한다. 그런 상황에서 누군가 '응오'의 벼를 훔쳐가게 되고, 형 '응칠'은 도둑을 잡기 위해 잠복하다 도둑에게 달려든다. 도둑의 정체는 논의 주인인 '응오'였다. 소작료로 벼를 전부 빼앗기게 되자 자신의 벼를 도둑질하는 상황에 이른 것이다. 자신의 논에서 도둑질을 하는 비상식적인 상황을 통해 소설은 20세기 초의 비참한 현실을 역설적으로 드러낸다고 할 수 있다.

반어 : 말하고자 하는 뜻과 일부러 반대되게 말하는 것. 일상에서 흔히 하는 '잘~한다'라는 식의 비꼬는 표현이다. 민요를 계승한 김소월 등의 시나 풍자시에서 종종 사용되지만, 조선 중기 이전의 고전 시가와, 일반적인 현대시에서는 거의 쓰이지 않는다.

나 보기가 역겨워/가실 때에는/죽어도 아니 눈물 흘리우리다.

영탄 : 감탄사(아아, 오호라 등), 감탄 호격 조사(-아, -야, -시여 등), 감탄형 종결어미(-로다, -노라, -구나, -ㄴ가 등)를 사용하여 감정을 강하게 나타냄.

14 수능) 이 내 생애 엇더한고. 이 내 생애 어떠한가. 98 수능) 아, 저들은 변경과 개혁을 마음대로 하고, 우리 임금을 폐하고 세움조차 저들 손에 달렸구나.

설의 : 의문형 종결 어미(가, 고, 까, 랴, 냐 등)를 사용하여 자신이 이미 아는 것을 물어보는 형식으로 내용을 강조. 설의법은 영탄적 어조이지만, 영탄이라고 전부 설의는 아님.

16 수능) 어와 동량재를 뎌리 하야 어이 할고. 14 수능) 뒷모습은 얼마나 아름다운가.

언어유희 : 웃음을 주려는 '의도'를 포함한 말장난. 판소리계 소설에서 열거와 함께 자주 사용된다. (언어유희로 갈등을 고조=>99% 틀림) 근데 사실 별로 웃기지는 않을 때가 많다...

06 6월) 천사는 언어유희를 통해 교수와의 정상적인 의사소통을 회피하고 있다. (o) 교수 : 내 꿈을 도로 찾아 주십시오. 생각할 힘을 주시오. 요즈음은 통 사고를 할 수가 없습니다. 천사 : 사고(思考)할 필요가 없어요. 이미 사고(事故)가 난걸요. 교수 : 이 함정에서 뛰어나가고 싶습니다. (천사가 서서히 사라진다.) 가지 마시오!

열거 : 내용적으로 비슷한 어구, 문맥상 이어지는, 또는 비슷한 심상의 단어 등을 쭉 나열함. 간혹 두 개만 있어도 열거냐고 물어보는 학생들이 있는데, 수능에 그런 식으로 나온 적은 없으니 안심하자.

98 수능) 별 하나에 추억과/별 하나에 사랑과/별 하나에 쓸쓸함과/(후략)

의인법 : 인간이 아닌 것을 인간에 비유하여 표현하는 것. 인간만의 특성 (슬픔을 느끼고 울거나, 사랑하는 이를 그리워하는 것)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는 점에서 활유법과 구분된다.

활유법 : 무생물을 생물처럼, 감정이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묘사하는 것. 즉, 모든 의인법은 활유법이고, 활유법은 의인법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18 수능에서는 '시적 대상에 생명력을 부여하여'라는 표현으로 대용되었다. 의인과 활유를 구분하는 문제는 나오기 힘들다.

과장법 : 사물이나 현상을 실제보다 과장하여 표현하는 것

18 9월) 생눈 나올 일을 당하니 , 이를 어이한단 말인고? 귀신이 장난치고 조물주가 시기하니 , 누구를 탓하겠냐마는 속절없이 춘향을 어찌할 수 없네!

도치법 : 문장의 순서를 바꾸어 전달하고자 하는 바를 강조하는 것

12 9월) 나도 몰래 끌렸네 정겨운 그의 마음에

점층법 : 문장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를 더 확장시키면서 점점 심화시켜 절정에 이르게 하는 수사법

13 수능) 나를 알고 이웃을 이해하고 사회와 소통해 보세요. 김수영「눈」: 눈은 살아 있다/떨어진 눈은 살아 있다/마당 위에 떨어진 눈은 살아 있다

연쇄법 : 앞 구절의 끝 어구를 다음 구절의 앞 구절에 이어받아 강조하는 수사법. 문장에 리듬감을 부여한다.

16 수능) 연쇄를 통해 리듬감이 드러나고 있다 (o) 집일을 곳치거든 종들을 휘오시고/종들을 휘오거든 상벌을 밝히시고/상벌을 밝히거든 어른 종을 미드쇼셔

대구법 : 비슷한 어조나 느낌의 어구를 짝지어 놓는 수사법

16 수능) 유사한 어구의 반복과 대구를 통해 인물의 심경을 드러내고 있다. (o) 못 보것네, 못 보것네, 병든 용왕 못 보것네. 나의 충성 부족던가, 나의 정성 부족던가? 객사 신세 자라 팔자, 이 아니 불쌍한가?

은유법 : A는 B이다 식의 비유법. 이때 A를 원관념으로, B를 보조관념으로 칭한다.

내 마음은 호수요, 그대 노 저어 오오 낙엽은 폴란드 망명 정부의 지폐

직유법 : '같이', '처럼', '듯이' 등의 연결어를 사용하여 비유하는 것

07 9월) 석탑은 해맑은 동자승의 미소를 띠고 다정한 친구처럼 내게 말을 건넨다. 05 6월) 햇빛처럼 환한 너의 웃음 10 수능) 쌍룡이 뒤트는 듯 긴 깁을 펼쳤는 듯/어디로 가노라 무슨 일 바빠서

2. 문학의 기본적 개념어

1인칭/2인칭/3인칭 서술자

1인칭 주인공 시점 : '나'를 주어로 이야기를 진행하며, 주인공이 아는 만큼만 상황이 서술된다. '나'의 직접적인 내면 서술이 가능하며, 타인의 내면 서술은 간접적인 방식으로 드러난다.

1인칭 관찰자 시점 : 소설에서 주인공은 아닌 인물이 '나'가 되어, 그가 주인공 및 다른 이들을 관찰하며 상황을 서술하는 형식. 위대한 개츠비, 셜록 홈즈 등의 소설.

2인칭 시점 : 2인칭은 '너'인데, 2인칭 시점을 소설에서 인정될 수 있는가에 대한 논란이 있어 출제되지 않는다. 신경숙의 '엄마를 부탁해'는 주어를 '너'로 설정해 독자를 작품의 주인공처럼 느끼게 만드는 효과를 주는데, 예외적인 사례이다.

3인칭 관찰자 시점 : 인물들의 바깥에서 이야기가 서술되는 것. 관찰자 시점이라 함은 대상의 외면만을 묘사해야 하나, 실제 집필과정에서는 3인칭 관찰자 시점에서도 '전지적 서술'이 일부 가미된다.

전지적 작가 시점 : 소설의 상황뿐 아니라 미래, 과거, 인물의 내면까지 서술하는 형식.

제한적 전지적 작가 시점 : 특정한 인물의 시점을 선택하여 그의 내면까지 서술하는 방식. 1인칭 시점과 혼동될 수 있으나, 주어로 '나'가 아닌 '그'나 '그녀'가 쓰인다.
제한적 전지적 작가 시점의 경우, 16 6월 모의고사에서 '특정 인물의 시각에서 서술하여 그의 내면에 공감하도록 유도한다'라는 선지가 참으로 판단된 바가 있다. '특정 인물의 시각에서 서술한다'는 선지는 1인칭 소설 또는 제한적 전지적 작가 시점에서 참이다.

운문 : 일정한 운 또는 언어적 규칙에 따라 적은 글. 대개 시를 말한다.

산문 : 율격과 관계없이 자유롭게 쓴 글. 소설, 수필 등을 말하고 간혹 산문 형태의 시도 존재한다.

운율 : 시에서 느껴지는 음악적인 특징을 말한다. 운율을 살리기 위해 글자 수를 고정하여 규칙성을 만드는 '음수율'을 사용하거나, 특정한 구절을 반복한다거나, 비슷한 어감의 단어를 연달아 사용하거나, 대구법을 사용하는 등의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음수율은 7글자·5글자를 반복하는 7·5조(⑦나보기가 역겨워/⑤가실 때에는), 4·4조, 3·4조 등이 있고, 음보율은 한 행을 끊어서 읽는 단위에 따라 민요에서 주로 사용되는 3음보(우러라/우러라/새여)와 가사, 시조에서 주로 사용되는 4음보(동청이/밝았느냐/노고지리/우지진다)가 있다. 다만 이 규칙이 완벽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이어지는 시도 드물고, 요즘 평가원에서는 거의 문제로 나오지 않으며, 물어보더라도 2019 9월 모의고사처럼 개념을 <보기>로 주고 문제를 낼 가능성이 크니 너무 개의치 말자. 그냥 리듬감이 느껴지면 운율이다.

어느 날 당신과 내가
날과 씨로 만나서
하나의 꿈을 엮을 수만 있다면
우리들의 꿈이 만나
한 폭의 비단이 된다면
나는 기다리리,

추운 길목에서
오랜 침묵과 외로움 끝에
한 슬픔이 다른 슬픔에게 손을 주고
한 그리움이 다른 그리움의
그윽한 눈을 들여다볼 때
어느 겨울인들
우리들의 사랑을 춥게 하리
외롭고 긴 기다림 끝에
어느 날 당신과 내가 만나
하나의 꿈을 엮을 수만 있다면

14 수능) '다면', 끝에' 등의 반복적 사용으로 운율의 효과를 얻고 있다. (o)

먹밤중 한밤중 새터 중뜸 개들이 시끌짝하게 짖어댄다
이 개 짖으니 저 개도 짖어
들 건너 갈뫼 개까지 덩달아 짖어댄다
이런 개 짖는 소리 사이로
언뜻언뜻 까 여 다 여 따위 말끝이 들린다
밤 기러기 드높게 날며
추운 땅으로 떨어뜨리는 소리하고 남이 아니다
앞서거니 뒤서거니 의좋은 그 소리하고 남이 아니다

11 수능) 유사한 구절을 병치하여 운율감을 조성한다. (o)

-원천석- 흥망(與亡)이 유수(有數)흐니 만월대(滿月臺)도 추초(秋草) ㅣ로다

「상춘곡」 홍진(紅塵)에 뭇친 분네 이 내 생애(生涯) 엇더훈고

14 수능) 두 시는 동일한 음보율을 사용하여 리듬감을 살리고 있다 (o)

시행 : 시의 한 행.

10 6월, 13 9월 등) '동일한 시행의 반복'이라면 한 줄이 아예 똑같이 반복되어야 함

구절 : 한 토막의 말

시구 : 시의 구절 => 시의 전체 내용 중 하나의 토막(즉, 일부만 같아도 같은 시구.)

11 9월) 시구의 반복을 통해서 리듬감을 조성하고 있다(o)

산에 오면 산 소리/벌로 오면 벌 소리//산에 오면/큰솔밭에 뻐꾸기 소리/잔솔밭에 덜거기 소리//벌로 오면/논두렁에 물닭의 소리/갈밭에 갈새 소리//산으로 오면 산이 들썩 산 소리 속에 나 홀로/벌로 오면 벌이 들썩 벌 소리 속에 나 홀로

골계 : 웃음을 주는 요소.
=>대체로 대상에 대한 동정을 유발 : 해학
=>대상에 대한 비판과 조롱의 뜻을 담고 있을 때 : 풍자
풍자는 확실히 '비판'이 있어야 하지만 풍자를 해학이라고 말할 수도 있다.

해학

15 9월) 님이 오마 ᄒᆞ거늘 저녁밥을 일 지어 먹고

中門(중문) 나서 大門(대문) 나가 地方(지방) 우희 치ᄃᆞ라 안자 以手(이수)로 加額(가액)ᄒᆞ고 오ᄂᆞᆫ가 가ᄂᆞᆫ가 건넌 山(산) ᄇᆞ라보니 거머흿들 셔 잇거ᄂᆞᆯ 져야 님이로다.

보션 버서 품에 품고 신 버서 손에 쥐고 곰븨님븨 님븨곰븨 쳔방지방 지방쳔방 즌ᄃᆡ ᄆᆞ른ᄃᆡ ᄀᆞᆯ희지 말고 위렁충창 건너가셔 情(정)엣말 ᄒᆞ려 ᄒᆞ고 겻눈을 흘긧 보니 上年(상년) 七月(칠월) 사흔날 ᄀᆞᆯ가벅긴 주추리 삼대 ᄉᆞᆯ드리도 날 소겨다.

모쳐라 밤일싀 망졍 힝혀 낫이런들 ᄂᆞᆷ 우일 번ᄒᆞ괘라.

해설 : 두 번째 연은 '임'을 그리워하는 화자가 '주추리 삼대'를 '임'으로 착각하여 맨발로 뛰쳐나가는 모습을 '곰븨님븨' 등의 의태어를 사용하여 웃음을 자아내고 있다. 풍자와는 달리, 이는 화자에 대한 비판이나 조롱보다는 그에 대한 동정과 공감을 유발한다.

풍자 : 14 수능에 가전 소설이나, 14 예비시행 흥부전의 놀부 등, 고전소설에서 우스꽝스럽게 그려지는 악역들의 모습.

14 예비) "글쎄요. 그 국이 매우 유명하오 당동."
놀부 자식들이 어미를 부르면서 ,
"이 국맛이 좋소 당동."
놀부 하는 말이 ,
"그 국을 먹더니 말끝마다 당동당동 하니 가장 고이하도다 당동."
놀부 처가 대답하되 ,
"글쎄요. 나도 그 국을 먹더니 당동 소리가 절로 나오 당동."

해설 : 제시된 부분은 놀부가 제비 다리를 부러뜨려 얻은 박으로 죽을 쑤어 먹자, 말 끝마다 '당동' 소리가 나오게 된 장면이다. 지금 우리 눈에는 별로 웃기지 않지만, '웃기려는 의도'가 있었으므로 풍자라고 생각하면 된다.

가전 소설, 가전체 : 어떤 사물, 무정물을 사람처럼 표현하여, 물건들끼리 벌어지는 일을 나타낸 소설. 고려 후기~조선 초기에 잠시 유행한 소설이며, 대개 해학 또는 풍자의 메시지를 담고 있음. 술의 단점을 비판하는 국순전, 바느질 도구들끼리 말다툼을 벌이는 규중칠우쟁론기 등이 대표적인 가전 소설.

14 9월) 순이 권세를 얻게 되자, 어진 이와 사귀고 손님을 대접하며, 종묘에 제사를 받드는 등의 일을 앞장서서 맡아 주관하였다. 임금이 밤에 잔치를 열 때에도 오직 그와 궁인만이 곁에서 모실 수 있었을 뿐, 아무리 임금과 가까운 신하여도 참여할 수 없었다. 이후로 임금은 곤드레만드레 취하여 정사를 폐하게 되었다. 해설 : 국순전은 술을 의인화하여 그의 일생을 그린 작품이다. '순'은 매력적인 인물이지만, 입냄새가 매우 심하고, 그를 곁에 둔 이들은 좋지 않은 결과를 얻게 된다. 이러한 국순의 일생을 통해 작가는 술의 부정적인 모습을 사람들에게 널리 알리고자 하였다.

액자식 소설 : 어떤 인물이 서술자가 되어, 소설이라는 이야기 안에서 또 다른 이야기를 서술하는 것. 이때 바깥 이야기와 내부 이야기로 둘을 구분한다. 이청준의 <줄> 등이 대표적이다. 이야기를 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이 반드시 등장해야 한다. 단순한 회상이 등장하는 것은 액자식 소설이라고 볼 수 없다.

역순행적 구성 : 소설의 서술 방식 중 하나로, 현재에서 과거로 서술 시점이 변하는 것.

유정, 무정 : 유정물은 사람이나 동물, 무정물은 그 외.

심상 : 감각을 통해 경험한 현상을 마음 속에서 재생하는 것. '이미지', '표상'과 같은 말이며, 당연하게도 모든 문학 작품은 전체적인 차원에선 심상을 표현하고 있다. 거의 대부분의 시가 '감각적 이미지'를 포함하고 있는 것도 마찬가지 이유이다. '~를 통해 심상을 드러낸다'는 선지가 있으면 '심상을 드러낸다'는 부분만큼은 보통 맞고, 앞 부분의 참거짓을 따지면 된다.

공감각적 심상 : 청각의 시각화, 시각의 청각화, 시각의 촉각화 등 하나의 감각에서 비롯된 심상을 다른 감각의 심상과 엮어 표현하는 것.

15 6월) 피부의 바깥에 스미는 어둠 (시각의 촉각화) 09 9월) 춘향의 마음과 어우러지는 옥빛 소리 한 자락 (청각의 시각화)

감정 이입 :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감정 이입'이라는 표현은 드라마를 보고 인물한테 공감을 느끼는 식으로, 인물의 감정을 독자가 느끼는 것이지만, 문학 용어로서의 '감정 이입'은 방향이 반대다. '저 새도 나와 같이 우는구나'라면, 슬픔을 느끼는 화자가 '새' 또한 자신과 같은 감정을 느껴 울고 있다고 표현한 것이다. 이때 새가 실제로 슬픔을 느껴 울 수는 없으니 이는 화자의 감정을 말하는 것이며, 이를 감정 이입이라고 한다. 의인법이 활용될 수밖에 없다.

객관적 상관물 : 화자의 정서, 감정 등을 동물, 사물 등의 매개체를 통해 간접적으로 드러내는 것. 이때, '화자의 정서=대상이 가진 1차적인 정서'이어야만 객관적 상관물이다.

선경후정 : 경치를 먼저 묘사하고 그를 이용하여 자신의 감정, 느낌을 나중에 표현하는 것.

17 9월) 한식(寒食) 비 온 밤에 봄빗치 다 퍼겻다/무정(無情)한 화류(花例l)도 때를 아라 피엿거든/엇더라 우리의 님은 가고 아니 오난다

해설 : 봄이 와서 꽃이 핀 장면을 묘사한 뒤, 때가 되면 피는 꽃과는 달리, 왜 자신이 그리워하는 '임'은 돌아올 때가 되어도 돌아오지 않냐는 말을 통해 화자의 그리운 감정을 나중에 표현하고 있다.

15 수능) 선경후정의 방식을 활용하여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o)

해ㅅ살 피여
이윽한 후,

머흘 머흘
골을 옮기는 구름.

길경 꽃봉오리
흔들려 싯기우고.

차돌부터
촉 촉 죽순 돋듯.

물 소리에
이가 시리다.

앉음새 갈히여
양지 쪽에 쪼그리고,

서러운 새 되어
흰 밥알을 쫏다.

수미상관 : 처음과 끝에 같은 구절, 또는 비슷한 구절을 배치하는 것. 시의 경우 첫 연과 마

지막 연이 비슷하거나 같은 것을 나타냄.

15 9월) (가), (나)는 모두 수미상관의 구조를 통해 주제를 강조하고 있다. (o)

(가) 모란이 피기까지는
나는 아직 나의 봄을 기다리고 있을 테요
모란이 뚝뚝 떨어져 버린 날
나는 비로소 봄을 여읜 설움에 잠길 테요
오월 어느 날 그 하루 무덥던 날
떨어져 누운 꽃잎마저 시들어 버리고는
천지에 모란은 자취도 없어지고
뻗쳐오르던 내 보람 서운케 무너졌느니
모란이 지고 말면 그뿐 내 한 해는 다 가고 말아
삼백예순 날 하냥 섭섭해 우옵네다
모란이 피기까지는
나는 아직 기다리고 있을 테요 찬란한 슬픔의 봄을
- 김영랑 ,「모란이 피기까지는」-

(나) 북한산이
다시 그 높이를 회복하려면
다음 겨울까지는 기다려야만 한다.

밤사이 눈이 내린,
그것도 백운대나 인수봉 같은
높은 봉우리만이 옅은 화장을 하듯
가볍게 눈을 쓰고

왼 산은 차가운 수묵(水墨)으로 젖어 있는 ,
어느 겨울날 이른 아침까지는 기다려야만 한다.

신록이나 단풍 ,
골짜기를 피어오르는 안개로는 ,
눈이래도 왼 산을 뒤덮는 적설(積雪)로는 드러나지 않는 ,

심지어는 장밋빛 햇살이 와 닿기만 해도 변질하는 ,
그 ©고고(孤高)한 높이를 회복하려면

백운대와 인수봉만이 가볍게 눈을 쓰는
어느 겨울날 이른 아침까지는
기다려야만 한다.
- 김종길 ,「고고(孤高)」-

해설 : 김종길의 「고고(孤高)」는 첫 연과 끝 연이 아주 비슷하지는 않지만, 이 정도만 비슷해도 수미상관이라는 것을 알아두자.

독백체 : 혼자서 중얼거리듯이 서술하는 것. 듣는 이가 드러나지 않는 상황에서, 말을 건네듯이 서술하는 것이다.

11 6월) 독백적 어조로 화자의 내면을 드러내고 있다 (o)

조금 전까지는 거기 있었는데
어디로 갔나.
밥상은 차려 놓고 어디로 갔나.
(후략)

자조적 : 자기를 비웃는 말투. 씁쓸한 감정을 느낄 때가 많다.

15 9월) 그런 생각을 하자 나는 쓴웃음이 나왔다.
김승옥 ,「무진기행」

14 9월) 앞날을 낙관하지 못하는 농촌 사람들이 던지는 자조적 물음으로도 이해될 수 있어.(o)

징이 울린다 막이 내렸다
오동나무에 전등이 매어달린 가설 무대
구경꾼이 돌아가고 난 텅빈 운동장
우리는 분이 얼룩진 얼굴로
학교 앞 소주집에 몰려 술을 마신다
답답하고 고달프게 사는 것이 원통하다
꽹과리를 앞장세워 장거리로 나서면
따라붙어 악을 쓰는 건 쪼무래기들뿐
처녀애들은 기름집 담벽에 붙어서서
철없이 킬킬대는구나
보름달은 밝아 어떤 녀석은
서림이처럼 해해대지만 이까짓
산구석에 처박혀 발버둥친들 무엇하랴
비료값도 안 나오는 농사 따위야
아예 여편네에게나 맡겨두고
쇠전을 거쳐 도수장 앞에 와 돌 때
우리는 점점 신명이 난다
한 다리를 들고 날나리를 불거나
고갯짓을 하고 어깨를 흔들거나

해설 : '발버둥친들 무엇하랴', '신명의 난다', 생계가 어려운 상황에 춤을 추는 장면을 묘사한 표현 등으로 자조적 태도를 드러낸다.

고백적 : 마음에 품은 생각을 거리낌없이 말하는 것. 그냥 자기 감정을 솔직하게 있는 그대로 드러내면 고백적이다.

단정적 어조 : 대상에 대한 인식이나 의지를 강하게 드러내는 것. 수능에는 물음의 형식으로 쓰인 상황에서 틀린 선지로 출제되었으나, '어찌 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같은 설의법의 표현에서는 단정적일 수 있으니 상황을 보고 판단하자.

경어체 : 존댓말. 시에서 쓰인다면 경건함이나 웅장함 등의 느낌을 줄 수 있으나 항상 비슷한 느낌은 아니다.

의성어 : '소곤소곤', '덜그럭덜그럭'처럼, 사람이나 사물의 소리를 흉내낸 말

의태어 : '엉금엉금', '번쩍번쩍'과 같이, 사람이나 사물의 모양이나 움직임을 흉내낸 말

전기성 : 고전 소설 등에서 비현실적인 상황이 발생하는 것. 도술이라든가, 꿈에서 신을 만난다든가.

서술자의 개입/편집자적 논평 : 3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에서, 서술자가 자신의 의견이나 감정을 직접적으로 드러내는 것.

06 6월) 오소리는 본디 마음이 순한지라
해설 : 오소리라는 동물에 대한 서술자의 판단을 드러낸다.
12 6월) 적산집 뒷간이 밖에 있을 리가 없다.
해설 : 소설의 상황에 대한 서술자의 추측 및 판단을 드러낸다.
14 예비) 자고로 여자가 나쁜 마음을 먹으면 못할 일이 없는 법이라.
해설 : 서술자의 성차별적 인식을 드러낸다. 속담은 종종 발언의 양태로 주관이 포함된다.
15 9월) 산천초목이 슬퍼하며 진중의 군사들도 눈물을 흘리지 않는 이가 없더라.
해설 : 산천초목이 실제로 슬퍼할 리는 없다. 서술자의 감정을 드러낸다.

내적 갈등 : 인물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갈등. 소설뿐 아니라 시에서도 드러난다.

19 9월) 강호(江湖)에 놀자 흐니 성주(聖主)를 버리겠고/성주를 섬기자 흐니 소락(所樂)에 어긋나네

해설 : 자연(강호) 속에서 풍류를 즐기고 싶은 마음과, 성주(임금) 밑에서 열심히 일하고자 하는 마음이 갈등을 일으키고 있다.

3. 수능 등의 문학 시험에 빈출되는 표현

시선이 원경에서 근경으로 이동 : 수능에서 틀린 선지로 빈출. 화자의 위치가 그대로일 때, 표현하는 '대상만' 먼 것에서 가까운 것으로 바뀌어야 함. 이때 화자의 위치를 정확히 알 수 없을 때는 원경이 확실히 먼 것(구름, 별, 달, 해 등)이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편하다.

15 수능) 머흘 머흘/골을 옮기는 구름.//길경 꽃봉오리/흔들려 씻기우고. 해설 : 구름은 확실히 멀리 있고, 꽃봉오리는 상대적으로 가까이 있으니 원경에서 근경으로 이동한 것이 맞다.

말을 건네는 방식 : 청자(사람, 사물, 동물 등)를 설정하여 말을 건네야 함.

16 6월) 외기러기 날지말고 내 말 들어//(중략)//부듸 한 말을 전하여 주렴 14 수능) 홍진에 묻힌 분네 이 내 생에 어떠한고

대화의 형식, 대화적 구성 : 화자와 다른 이가 말을 '서로' 주고 받아야 함. 보통 시에서는 드러나지 않고, '속미인곡' 정도가 예외적인 사례. 소설에서는 이야기의 진행을 지연시키는 효과를 준다. (대화체에 대한 설명은 https://orbi.kr/00031713659 참조)

색채 이미지 : 색채를 연상시키는 시어도 색채 이미지가 될 수 있으나, 색채어(빨간, 파란 등)가 아닌 색채 이미지를 물어보는 기출이 등장하지 않았으므로 색채어와 같다고 생각해도 될 듯.

20수능) 붉은 게, 누런 닭

완상하다 : 구경하며 즐기다. 자연을 감상하는 시에서 자주 나온다.

관조하다 : 고요한 마음으로 사물이나 현상을 관찰하다 => 개입, 적극적 행동 x. 멀리 떨어져서 보는 것을 가리키는 경우가 많고, 관조적 어조는 열정적 어조와 대립되어 쓰인다. (10 9월 비문학, 04 6월 등) 현대시에서 '관조적'이라는 표현은 대개 오답이다(아닌게 나올 수도 있으니 단어만 보고 판단하진 말자...)

계절감을 나타내는 어휘 : 춘/하/추/동이 포함된 어휘라든지, 낙엽, 눈 등 계절이 떠오르는 단어.

계절적 배경 : 시에서 '계절적 배경을 드러낸다'는 말이 나왔을 경우, 그 시의 전체적인 배경 자체가 확실해야만 맞음. 예컨대 '내 가슴이 얼어붙었다', '그의 눈에는 서리가 낀 듯했다' 같은 비유는 계절을 나타내는 것이 아님.

외양 묘사를 통해 : 인물의 생김새를 표현함으로써, 그에 대한 화자의 인식이나, 해당 인물의 성격을 드러내는 경우에 선지로 적합함.

16수능) 나는, 젖힌 그의 얼굴에서 동굴처럼 뚫린 콧구멍과 그 속을 무성하게 채운 코털을 보며 잠깐 모멸과 혐오를 느꼈다.

해설 : '모멸과 혐오를 느꼈다'라는 부분이 없더라도, 콧구멍과 코털을 묘사한 부분에서 서술자의 대상에 대한 인식을 추측할 수 있다.

요약적 제시, 요약적 서술, 압축적으로 제시 : 소설에서, 긴 시간에 걸쳐 일어난 일을 몇 줄의 설명으로 간단히 설명하는 경우.

14 예비) 동청이란 사람은 일찍 부모를 여의고 세상에 떠돌며 무뢰배와 어울려 주색잡기를 일삼았다. 그나마 있던 재산을 탕진하고 생계가 막연하여 객지로 나와 대갓집에 빌붙어 살았다. 잘생긴 얼굴에 말주변과 글재주가 있으니 이름난 선비들이 처음에는 이 사람을 받아들여 잘 대해 주었다. 그러나 그 자제들을 유혹하여 나쁜 짓을 같이 하는 바람에 결국 쫓겨나게 되었다.

애상 : 슬퍼하거나 가슴 아파함.

15 6월) '다정'에는 애상적 정서가 표현되어 있다. (o)

다정(多情)도 병(病)인 양하여 잠 못 들어 하노라

해설 : '다정(정이 많은 것, 사랑)도 병인 것 같다, 임을 그리워하느라 잠을 못 이룬다'는 부분에서, 임을 그리워하는 화자의 애상적 정서가 드러난다.

세속적 : 현실, 또는 특히 사람이 많은 도시 등을 말함. 물질적 가치를 이야기하기도 하나 앞의 설명에 포함된다. '홍진' 등의 어휘로 표현된다. '자연', '초월', '탈속'과 대립된다(다만, 이 셋은 뜻이 서로 다르다).

초월적 : 고전소설에 나타나는 비현실적 존재라든지, 시에서 현실의 번뇌 등을 벗어난 태도를 말한다.

15 수능 <보기> 정지용은 조찬 같은 후기 시에서 자연을 초월과 은둔을 꿈꾸는 이상적 세계로 묘사하고 그에 대한 지향을 드러낸다.

해ㅅ살 피여
이윽한 후,

머흘 머흘
골을 옮기는 구름.

길경 꽃봉오리 흔들려 씻기우고.

차돌부리
촉 촉 죽순 돋듯,

물 소리에 이가 시리다.

앉음새 갈히여
양지 쪽에 쪼그리고,

서러운 새 되어
흰 밥알을 쫏다.

화자가 작품의 표면에 드러나 있다 : 직접적으로, 서술하는 이가 '나'라고 밝힌 경우

12 9월) 나는 학교에서 그릇이라 배웠지만/어머니는 인생을 통해 그릌이라 배웠다

인간과 자연을 대비 : 인간과 자연이 서로 나타내는 바, 함축하는 바, 화자가 긍정적으로 또는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바가 반대되어야만 맞다. 자연물이 객관적 상관물의 역할을 할 때, 인간을 은유한 것일 때는 당연히 틀린 선지.

19 6월) 날아가는 왁새와 완창을 한 소리꾼을 대비하여 (x)

득음은 못하고, 그저 시골장이나 떠돌던
소리꾼이 있었다, 신명 한 가락에
막걸리 한 사발이면 그만이던 흰 두루마기의 그 사내
꿈속에서도 폭포 물줄기로 내리치는
한 대목 절창을 찾아 떠돌더니
오늘은, 왁새 울음 되어 우항산 솔밭을 다 적시고
우포늪 둔치, 그 눈부신 봄빛 위에 자운영 꽃불 질러 놓는다
살아서는 근본마저 알 길 없던 혈혈단신
텁텁한 얼굴에 달빛 같은 슬픔이 엉켜 수염을 흔들곤 했다
늙은 고수라도 만나면
어깨 들썩 산 하나를 흔들었다
필생 동안 그가 찾아 헤맸던 소리가
적막한 늪 뒷산 솔바람 맑은 가락 속에 있었던가
소목 장재 토평마을 양파들이 시퍼런 물살 몰아칠 때
일제히 깃을 치며 동편제 넘어가는
저 왁새들
완창 한 판 잘 끝냈다고 하늘 선회하는
그 소리꾼 영혼의 심연이
우포늪 꽃잔치를 자지러지도록 무르익힌다

해설 : '왁새 울음'은 화자로 하여금 한 소리꾼의 삶을 떠올리게 하고, '왁새'는 '소리꾼'과 동일시되는 소재로 활용된다. '저 왁새들/완창 한 판 잘 끝냈다고 하늘 선회하는/그 소리꾼 영혼의 심연이' 등의 부분에서 '인간과 자연이 대비'되었다는 설명이 완전히 틀렸음을 확인할 수 있다.

갈등을 해소 : 인물의 내적인 갈등이나, 인물과 인물의 갈등이 완전히 해결되어야 맞는 선지다. 보통 틀린 선지로 나온다.

회상의 매개체 : 어떤 사물이 인물의 회상을 유발함.

05 6월) 아버지는 오른손을 반쯤 올렸다 내렸다. 왼손에는 책이 들려 있었다. 지섭의 책에 아버지의 손때가 까맣게 묻었다. 아버지와 지섭은 우리에게 대기권 밖을 날아다니는 사람들로 보였다. 두 사람은 하루에도 몇 번씩 달을 왕복했다.

해설 : 서술자는 '아버지'가 들고 있는 '책'을 보며 '아버지'와 '지섭'에 대해 회상한다.

확장 : 시나 소설에서 무언가가 확장된다는 것은, 화자 또는 인물의 개인적이거나 작은 경험이 그동안 인식하지 못했던 타인, 세계에 적용되는 경우를 가리킨다. 보통 순서대로 제시되는 대상이 전부 같은 범주 아래의 의미를 담고 있어야 확장되었다고 할 수 있다. 점층법과 같이 보면 좋을듯하다.

16 수능) 귀뚜라미나 여치 같은 큰 울음 사이에는/너무 작아 들리지 않는 소리도 있다/그 풀벌레들의 작은 귀를 생각한다

해설 : 귀뚜라미와 여치의 큰 울음소리를 듣다가 문득, 그들의 소리에 묻혀 들리지 않을 작은 벌레들을 화자는 떠올린다. 인식하던 것에서 인식하지 못하던 것으로 인식이 확장된 경우이다.

성격 변화 : 인물의 인성이 바뀌는 경우인데, 맞는 선지로 출제되는 경우가 거의 없다.

장면 전환 : 공간적 배경 또는 시간적 배경이 한순간에 변해야 한다.

14 수능) 순간적으로 장면을 전환하여 사건의 환상적 면모를 부각하고 있다. (o)

이날 밤에 강남홍이 취하여 취봉루에 가 의상을 풀지 아니하고 책상에 의지하여 잠이 들었더니 홀연 정신이 황홀하고 몸이 정처 없이 떠돌아 일처에 이르매 한 명산이라. 봉우리가 높고 험준하거늘 강남홍이 가운데 봉우리에 이르니 한 보살이 눈썹이 푸르며 얼굴이 백옥 같은데 비단 가사를 걸치고 석장(親杖)을 짚고 있다가 웃으며 강남홍을 맞아 왈, "강남홍은 인간지락(人間之樂)이 어떠한가?"

해설 : 강남홍이 꿈 속으로 들어가 천계에 진입하는 장면이다. 장면 전환이라 함은, 시간이 천천히 흐르는 경우가 아니라 한순간에 공간적, 시간적으로 서술의 배경이 바뀌어야 한다.

현재형 시제 : 문법적으로, 서술어의 기본형이나, 선어말어미 –ㄴ-, -ㄴ다-를 사용한 문장. 문학에서는 당장 사건이 일어나는 듯한 생동감을 준다.

동시에 벌어진 사건을 나란히(병렬적으로) 배치 : 할리우드 영화처럼, 같은 시간 다른 장소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을 교차로 제시하는 것을 말한다. 맞는 선지로 나온 적은 거의 없다.

공간의 대조, 공간의 대비 : 두 개의 상징적인 공간이 제시되고, 그 둘이 나타내는 바가 정반대여야 한다. 시 뿐 아니라 소설에서도, 가령 최인훈의 「광장」같은 경우 개인적 사유의 공간인 '밀실'과 타자와의 소통이 이루어지는 '광장'이 소설 전반에 걸쳐 대비된다.

고향에 돌아온 날 밤에
내 백골이 따라와 한방에 누웠다.
어둔 방은 우주로 통하고
하늘에선가 소리처럼 바람이 불어온다.
어둠 속에 곱게 풍화작용하는
백골을 들여다보며
눈물짓는 것이 내가 우는 것이냐
백골이 우는 것이냐
아름다운 혼이 우는 것이냐
지조 높은 개는
밤을 새워 어둠을 짖는다.
어둠을 짖는 개는
나를 쫓는 것일 게다.
자 가자
쫓기우는 사람처럼 가자
백골 몰래
아름다운 또 다른 고향에 가자.
- 윤동주 ,「또 다른 고향(故鄕)」-

굳어지기 전까지 저 딱딱한 것들은 물결이었다
파도와 해일이 쉬고 있는 바닷속
지느러미의 물결 사이에 끼어
유유히 흘러다니던 무수한 갈래의 길이었다
그물이 물결 속에서 멸치들을 떼어냈던 것이다
햇빛의 꼿꼿한 직선들 틈에 끼이자마자
부드러운 물결은 팔딱거리다 길을 잃었을 것이다
바람과 햇볕이 달라붙어 물기를 빨아들이는 동안

바다의 무늬는 뼈다귀처럼 남아
멸치의 등과 지느러미 위에서 딱딱하게 굳어갔던 것이다
모래더미처럼 길거리에 쌓이고
건어물집의 푸석한 공기에 풀리다가
기름에 튀겨지고 접시에 담겨졌던 것이다
지금 젓가락 끝에 깍두기처럼 딱딱하게 잡히는 이 멸치에는
바다가 있다 그 바다에는 아직도
지느러미가 있고 지느러미를 흔드는 물결이 있다
이 작은 물결이
지금도 멸치의 몸통을 뒤틀고 있는 이 작은 무늬가
파도를 만들고 해일을 부르고
고깃배를 부수고 그물을 찢었던 것이다.
- 김기택 ,「멸치」 -

13 9월) 「또 다른 고향」, 「멸치」는 모두 공간의 대비를 통해 지향하는 가치를 드러내고 있다. (o)

공간의 입체감 : 작품의 배경이 되는 공간 안에 여러 사물들을 묘사함으로써 작품의 공간을 구체적으로 그려내는 것을 말한다.

유란(幽蘭)이 재곡(在谷)ᄒᆞ니 자연(自然)이 듯디 죠해
백운(白雲)이 재산(在山)ᄒᆞ니 자연(自然)이 보디 죠해
이 즁에 피미일인(彼美一人)을 더옥 닛디 몯ᄒᆞ얘

산전(山前)에 유대(有臺)ᄒᆞ고 대하(臺下)애 유수(流水)ㅣ로다
떼 만흔 갈메기는 오명가명 ᄒᆞ거든
엇더타 교교 백구(皎皎白駒)ᄂᆞᆫ 멀리 ᄆᆞ음 두는고.

15 6월) 화자의 시선에 포착된 장면들을 배치하여 공간의 입체감을 부각하며 시상을 심화한다. (o)

무심 : 대상에 대한 감정이 없다는 뜻. 고전 시가에서는 관조, 초연 등과 비슷한 의미이다.

동일시 : 어떤 대상을 비슷한 속성을 지닌, 또는 관련된 다른 대상(또는 말하는 주체)와 동일한 것으로 여기거나, 그런 것처럼 행동하는 것을 말한다. 시에서는 주로 화자가 자신의 처지를 비유하기 위한 자연물을 제시하고, 직유와 은유를 통해 그와 자신을 동일시한다. '동일시'의 반대는 '대비'라고 보면 된다. 감정 이입, 의인화 등과 함께 쓰이는 경우가 많다.

18 수능) '풀'은 화자의 처지와 대비되는 소재로, '검불'은 화자의 처지와 동일시되는 소재로 제시되어 있다. (o)

구렁에 났는 풀이 봄비에 절로 길어
아는 일 업스니 긔 아니 조흘쏘냐
우리는 너희만 못ᄒᆞ야 시름겨워 ᄒᆞ노라 <제8수>

조그만 이 한 몸이 하늘 밖에 떨어지니
오색 구름 깊은 곳에 어느 것이 서울인고
바람에 지나는 검불 갓ᄒᆞ야 시름겨워 ᄒᆞ노라 <제9수>

해설 : '풀'은 아는 일이 없어서 좋겠다고 화자는 말한다. 우리(인간)은 너희(풀)과는 달리 비통한 일이 많아 시름겨워 한다는 얘기다. '풀'에게 인간과 대비되는 속성을 부여하여 부러워 한다는 점에서, '풀'은 화자와 대비된다. 반면, <제9수>에서는 바람에 휘날리는 검불(마른 낙엽)처럼 '하늘 밖에 떨어지'고, 시름겨워 한다고 말한다. 자연물에 대해 직유(갓ᄒᆞ야=같아)를 사용하여 자신의 처지를 '떨어지는 낙엽 같다'고 표현한 것이다.

16 6월) ㉢: 소의 주인과 소를 동일시하여 '장인'에 대한 서술자의 반감을 드러내고 있다. (o)

"안야! 안야! 이 망할 자식의 소 ㉢(장인님의 소니까) 대리를 꺾어 줄라."
그러나 내 속은 정말 안야 때문이 아니라 점심을 이고 온 점순이의 키를 보고 울화가 났던 것이다.
-김유정, 「봄·봄」

해설 : 「봄·봄」의 주인공은 '장인님'의 논에서 몇 년간 일을 하는 대신 '장인님'의 딸인 '점순이'와 결혼을 하기로 약속했다. 그러나 약속한 시간이 지났는데도, '장인님'은 '점순이'의 키가 아직 작다는 이유로 결혼을 시켜주지 않는다. 주인공은 이러한 이유로 '장인님'에게 불만을 가지고 있는 상태다. '안야'는 '장인님'의 소인데, 지금 괜한 화풀이를 소에게 하고 있는 것이다. 김유정의 소설에는 ㉢(장인님의 소니까) 같은, 괄호를 치고 서술자(여기서는 주인공)의 생각을 드러내는 서술이 많다. 지금 주인공은 '장인님의 소'를 '장인님'과 동일시하여, 쌓인 울분을 '장인님' 대신 '안야'에게 풀고 있는 것이다. 이 경우 '안야'는 '장인님'과 비슷한 속성을 지니지는 않으나, '장인님의 소'라는 관련성에서 동일시의 근거가 나타난 것이다.

13 수능) 화자는 흔들리는 현상을 바탕으로 자신을 대상과 동일시하고 있어. (o)

살아 있는 것은 흔들리면서
튼튼한 줄기를 얻고
잎은 흔들려서 스스로
살아있는 몸인 것을 증명한다.

바람은 오늘도 분다.
수만의 잎은 제각기
몸을 엮는 하루를 가누고
들판의 슬픔 하나 들판의 고독 하나
들판의 고통 하나도
다른 곳에서 바람에 쏠리며
자기를 헤집고 있다.

피하지 마라
빈들에 가서 깨닫는 그것
우리가 늘 흔들리고 있음을.

해설 : 시에서는 바람에 의해 흔들리는 식물, 들판의 모습을 보며 1연에서는 그들의 생명력을, 2연에서는 그들의 슬픔과 고독, 고통을 발견한다. 마지막 연의 경우 '피하지 마라'의 대상이 '그것'인지, '우리가 늘 흔들리고 있음'이라는 사실인지, 둘째로 '그것'이 '들판'인지, '살아있음, 슬픔, 고독, 고통'인지, '우리가 늘 흔들리고 있음'이라는 사실인지에 따라 해석에 다양한 경우의 수가 존재하는데, 뭐 어찌되었건 흔들리는 것들에 대해서 1연과 2연에서 쭉 이야기하다가 마지막에 '우리가 늘 흔들리고 있음을'이라고 말하였으니, 식물이든, 들판이든, 슬픔, 고독, 고통이든 뭐든 앞에 나온 무언가에 대해서 자신(조금 더 나아가, 인간)과 동일시하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없다.

07 수능) -김용준, 게-

붓에 먹을 찍어 종이에 환을 친다는 것이 무엇이 그리 대단한 노릇이리오마는 ㉠사물의 형용을 방불하게 하는 것만으로 장기(長技)로 치는 데 그치지 않고, 자연을 빌려 작가의 청고(淸高)한 심경을 호소하는 한 방편으로 삼는다는 데서 비로소 환이 예술로 등장할 수 있고 예술을 위하여 일생을 바치기도 하는 것이다.

이 오죽잖은 나한테도 아는 친구 모르는 친구한테로부터 시혹(時或) 그림 장이나 그려 달라는 부질없는 청을 받는 때가 많다. 내 변변치 못함을 모르는 내가 아닌지라 대개는 거절하고 마는 것이나,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할 수 없이 청에 응하는 수도 있고, 또 가다가는 자진해서 도말(塗抹)해 보내는수도 없지 아니하니, 이러한 경우에 택하는 화제(畵題)란 대개가 두어 마리의 게를 그리는 것이다.

게란 놈은 첫째, 그리기가 수월하다. 긴 양호(羊毫)에 수묵을 듬뿍 묻히고 호단(毫端)에 초묵을 약간 찍어 두어 붓 좌우로 휘두르면 앙버티고 엎드린 꼴에 여덟 개의 긴 발과 앙증스런 두 개의 집게발이 즉각에 하얀 화면에 나타난다. 내가 그려 놓고 보아도 붓장난이란 묘미가 있는 것이로구나 하고 스스로 기뻐할 때가 많다.

그리고는 화제를 쓴다.

뜰에 가득 차가운 비 내려 물가에 온통 가을인데
제 땅 얻어 종횡으로 마음껏 다니누나.
창자 없는 게가 참으로 부럽도다.
한평생 창자 끊는 시름을 모른다네.

역대로 게를 두고 지은 시가 이뿐이랴만 내가 쓰는 화제는 십중팔구 윤우당의 작이라는 이 시구를 인용하는 것이 항례다.

왕세정의 "마음껏 횡행하기를 얼마나 하겠는가. 결국에는 사람 입에 떨어질 신세인 것을." 하는 대문도 묘하기는 하나 무장공자(無腸公子)로서 단장(斷腸)의 비애를 모른다는 대문이 더 내 심금을 울리기 때문이다.

이 비애의 주인공은 실로 나 자신이 아닌가. 단장의 비애를 모르는 놈, 약고 영리하게 처세할 줄 모르는 눈치 없는 미물! 아니 나 자신만이 아니라 우리 민족 중에는 이러한 인사(人士)가 너무나 많지 않은가.

맑은 동해변 바위틈에서 미끼를 실에 매어 달고 이 해공(蟹公)을 낚아 본 사람은 대개 짐작하리라. 처음에는 제법 영리한 듯한 놈도 내다본 체 않다가 콩알만큼씩한 새끼 놈들이 먼저 덤비고 그 곁두리를 보아 가면서 차츰차츰 큰 놈들이 한꺼번에 몰려나와 미끼를 뺏느라고 수십 마리가 한 덩어리가 되어 동족상쟁을 하는 바람에 그때 실을 번쩍 추켜올리면 모조리 잡혀서 어부의 이(利)가 되게 하고 마는 것이다.

어리석고 눈치 없고 꼴에 서로 싸우기 잘하는 놈!

귀엽게 보면 재미나고, 어리석게 보면 무척 동정이 가고, 밉살스레 보면 가증(可憎)하기 짝이 없는 놈!

게는 확실히 좋은 화제다. 내가 즐겨 보내고 싶은 친구에게도 좋은 화제가 되거니와 또 뻔뻔스럽고 염치없는 친구에게도 그려 보낼 수 있는 확실히 좋은 화제다.

(07 수능 60번) 게를 어리석은 미물이라고 하면서도 스스로를 그런 게와 동일시한다는 점에서, 이 글은 글쓴이의 삶에 대한 반성을 담고 있는 것 같아. (o)

해설 : 단장(창자가 끊어짐)이라는 표현은 매우 슬픔을 나타내는 관용구다. 작가는 슬픔을 모르고, 처세할 줄도 모르는 어리석은, 심지어 동족과 싸움을 그치지 않는 '게'를 보며 '실로 나 자신이 아닌가'라고 한다. 이런 식으로 하찮은 미물들을 보며 거기서 인간의 속성을 찾아내 반성을 하는 수필들이 있다. 이렇게 어떤 자연물의 '인간과 비슷한 속성'을 들어 사람과 비교하는 글들은 전부 '대상과 동일시한다'가 참이라고 보면 될 듯하다.

(07 수능 58번) ㉠과 <보기>에 나타나 있는 예술관을 가장 잘 비교한 것은?

<보기> 글씨와 그림은 모두 수예(手藝, 손의 예술)에 속하는 것이니, 그 솜씨가 없으면 비록 총명한 사람이 죽을 때까지 그것을 배울지라도 능할 수 없다. 그런 까닭에 "수(手)에 있는 것이지, 흉중(胸中)에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다.

① ㉠과 <보기>에서는 모두 예술을 삶과 동일시한다. (x)

해설 : ㉠에서, 그림을 작가의 내면을 호소하는 방식으로 보고 예술에 일평생을 바치는 인간에 대해 이야기한 것은 분명 예술을 삶과 동일시한 면모가 있다. 그러나, <보기>의 경우 그림을 고작 "손의 기술일 뿐이지, 가슴에서 우러나오는 것이 아니다"라고 평가했다는 점에서 그림이 삶을 드러낼 수 있다고 보지 않았으므로 완전히 틀린 선지다.

여담으로, 이 문제는 보기의 '흉중'이라는 단어를 모르면 틀릴 가능성이 높다. 요즘은 이런 한자어를 학생들이 안다고 가정하고 문제를 내는 경우는 별로 없고, 보기의 맥락을 추론해야 하는 문제는 잘 나오지 않는다. 그러나 당장 2021 6월 모의평가 문제만 해도 '충'이 뭔지 모르면 풀기 어려운 문제가 출제된 바 있으니 가급적 기본적인 단어는 챙겨가도록 하자.